

---

#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경향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flic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

변성수\*, 배정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Sung-Soo Byun(bss@chungbuk.ac.kr)\*, Jeong-Hwan Bae(baejh@hanseo.ac.kr)\*\*

---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연구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연도에 비례하여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논문의 저자가 1인인 단독연구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이 연구논문 중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갈등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이 80.8%로 나타났다. 다섯째, 갈등연구의 목적이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와 현황 및 실태 분석이 91.3%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갈등분야는 행정/법·제도 및 시설입지 분야가 50.0%, 갈등수준은 조직간 갈등이 80.8%, 갈등주체는 정부간과 정부와 주민간 등이 76.0%, 갈등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64.5% 등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갈등 | 연구경향분석 | 행정학 |

### Abstract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fford a base data and a research direction for the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For this,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flic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published article number go on increasing in proportion to publication year. Second, a one-research paper have showed 71.2% of all papers because of limited researcher in the field of conflict research. Third, research paper which did not receive a research expenses have showed 73.1% of all papers. Fourth, research paper that used a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y have showed 80.8% of all papers in the methodology of conflict. Fifth, the research purpose that aimed to propose an alternative and practical analysis have showed 91.3% of all papers. Sixth, about the research contents, it have showed each 50.0%(administration/institution and facilities location), 80.8%(interorganization conflict), 76.0%(intergovernment,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64.5%(with local government) in a field, a level, a party, a relation of the conflict.

■ keyword : | Conflict | Research Trend Analysis | Public Administration |

## I. 서론

인류 사회는 갈등의 해결을 통하여 발전해왔으며,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갈등해결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본다면[2][3], 도전은 갈등으로, 응전은 갈등에 대한 관리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갈등은 인류역사 발전의 원천으로서 사회구성요소의 모든 상호관계에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에 대한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 갈등에 대한 연구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처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갈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복지 및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고 자원의 낭비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학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 방향을 조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연구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행정논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정부학연구’, ‘한국행정논집’ 등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갈등과 관련 있는 논문 104편을 연구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의 20년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 연도를 1989년부터 2008년으로 선정하였다.

## II. 갈등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경향 분석은 행정학에 대한 연구와 행정학 연구 영역별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학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 분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경향 분석 연구들의 조사기준으로 연구논문의 기초자료 내용, 방법론적 내용, 연구 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4-8].

표 1. 연구경향 분석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기초자료 내용	방법론적 내용	연구내용
이재은	논문 게재시기, 논문집성격, 논문 편당 저자수, 논문게재시제1저자 관련 사항 등	연구 접근법, 연구 방법, 실증분석 관련 사항 등	연구 지향성, 이론적 논의 여부, 선행연구 검토, 연구대상 유형 등
안병만	논문 게재시기, 참고문헌 관련 사항 등	연구방법(규범적제도적, 경험적행태적)	이론적 성격(소개, 적용, 창출, 기타)
권경득	학문 영역별 논문게재 시기, 연구비지원 여부 등	연구방법(서술적 접근, 통계적 접근, 모의실험/수학적 모델), 통계분석기법	연구초점(이론적이론형성, 실제적문제해결)
목진홍 박순애	논문의 유형, 저자수, 주제별 분류, 성격별 분류 등	분석방법, 분석기법, 자료수집 방법, 자료 종류, 분석단위	연구목적(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정책대안 제시, 기타), 정책 단계별 분류
주상현	학문 영역별 논문게재 시기, 연구지역, 연구비지원 여부 등	연구방법(서술적, 양적, 질적), 통계분석기법	연구초점(이론적이론형성, 실제적문제해결)

이 연구에서는 연구경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조사기준을 토대로 하여 기초자료 내용에서는 게재년도, 연구자수, 제1저자 소속, 제1저자 직위, 연구비 지원 등을 설정하였으며, 방법론적 내용은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연구목적, 갈등분야와 갈등당사자 관련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갈등당사자는 갈등상황의 파악 및 진행 방향, 갈등피해에 대한 책임, 갈등관리전략의 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갈등당사자 관련 사항으로 갈등수준, 갈등주체, 갈등관계 등을 설정하였다.

표 2. 연구경향 분석기준

분석기준	분석내용
계재년도	①1989-1993 ②1994-1998 ③1999-2003 ④2004-2008
연구자수	①1인 ②2인 ③3인 ④4인 ⑤5인 이상
제1저자 소속	①대학 ②대학연구소 ③국책/민간연구소(원) ④정부/민간 기관 ⑤기타
제1저자 직위	①전임교수 ②초빙/겸임/강사 등 ③연구원 ④공무원 ⑤대학원생 ⑥기타
연구비 지원	①한국학술진흥재단 ②교육과학기술부 ③대학연구비 ④기타 ⑤없음
연구방법	①문헌분석 ②실증분석 ③사례분석 ④모의실험/수학적 모델
연구목적	①이론 검증/정립/적용 ②대안/개선방안 제시 ③현황/실태 분석
갈등분야	①행정제도 분야 ②경제산업분야 ③환경 분야 ④사회문화 분야 ⑤시설입지 분야 ⑥기타
갈등수준	①개인적 수준 ②조직내 집단 수준 ③조직간 수준 ④기타
갈등주체	①정부간 ②정부와 주민간 ③주민간 ④기타
갈등관계	①중앙부처간 ②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단체간 ④중앙부처와 주민간 ⑤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⑥주민간 ⑦복합관계 ⑧ 기타

### III. 갈등 연구경향 실증 분석

#### 1. 연구논문의 기초자료 내용 분석

이 연구에서 선정한 논문집의 104편에 대한 계재년도 별 분석을 살펴보면, 1989-1993년 8편(7.72%), 1994-1998년 18편(17.3%), 1999-2003년 34편(32.78%), 2004-2008년 44편(42.3%) 등으로 나타났다. 계재년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게재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갈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논문의 연구자를 분석해 본 결과, 1인 74편(71.2%), 2인 20편(19.2%), 3인 8편(7.7%), 4인 1편(1.0%), 5인 1편(1.0%)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의 저자가 1인인 단독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갈등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논문의 제1저자 소속을 살펴보면, 대학 81

(77.9%), 정부/민간기관 2편(1.9%), 기타 3편(2.9%)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갈등연구는 대학에 의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초자료 내용 분석

분석 기준	내용	빈도	퍼센트
계재 년도	1989-1993	8	7.7
	1994-1998	18	17.3
	1999-2003	34	32.7
	2004-2008	44	42.3
	계	104	100.0
연구자수	1인	74	71.2
	2인	20	19.2
	3인	8	7.7
	4인	1	1.0
	5인 이상	1	1.0
	계	104	100.0
제1저자 소속	대학	81	77.9
	대학연구소	11	10.6
	국책/민간연구소(원)	7	6.7
	정부/민간기관	2	1.9
	기타	3	2.9
	계	104	100.0
제1저자 직위	전임교수	72	69.2
	초빙/겸임/강사 등	10	9.6
	연구원	17	16.3
	공무원	2	1.9
	대학원생	2	1.9
	기타	1	1.0
	계	104	100.0
연구비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9	8.7
	교육과학기술부	4	3.8
	대학연구비	10	9.6
	외부지원	5	4.8
	없음	76	73.1
	계	104	100.0

넷째, 연구논문의 제1저자 직위를 살펴보면, 전임교수 72편(69.2%), 초빙/겸임/강사 등 10편(9.6%), 연구원 17편(16.3%), 공무원 2편(1.9%), 대학원생 2편(1.9%), 기타 1편(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갈등연구의 후속연구자가 될 대학원생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논문의 연구비 지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학술진흥재단 9편(8.7%), 교육과학기술부 4편(3.8%), 대학연구비 10편(9.6%), 외부지원 5편(4.8%), 없음 76편(73.1%)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연구가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갈등 연구에 대한 연구지원이 요구된다.

## 2. 연구논문의 방법론적 내용 분석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경향을 살펴보면, 문헌분석 19편(18.3%), 실증분석 34편(32.7%), 사례분석 50편(48.1%), 모의실험/수학적 모델 1편(1.0%)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갈등 연구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갈등 연구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방법론적 내용 분석

분석기준	내용	빈도	퍼센트
연구방법	문헌분석	19	18.3
	실증분석	34	32.7
	사례분석	50	48.1
	모의실험/수학적 모델	1	1.0
	계	104	100.0

## 3. 연구논문의 연구 내용 분석

### 3.1 연구목적과 갈등 분야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논문의 연구목적을 살펴 보면, 이론 검증/정립/적용 9편(8.7%), 대안/개선방안 제시 46편(44.2%), 현황/실태 분석 49편(47.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개선방안 제시와 현황/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 전체 대상 논문의 91.3%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인 문제해결 및 처방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이론 검증/정립/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갈등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논문에서 대상갈등의 분야별 경향을 살펴 보면, 행정/제도 분야 24편(23.1%), 경제·산업 분야 10

편(9.6%), 환경 분야 12편(11.5%), 사회/문화 분야 5편(4.8%), 시설입지 분야 28편(26.9%), 기타 25편(24.0%)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시설입지 분야와 행정/법·제도 분야의 연구논문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분야에 대한 갈등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연구목적과 갈등 분야 내용 분석

분석 기준	내용	빈도	퍼센트
연구목적	이론 검증/정립/적용	9	8.7
	대안/개선방안 제시	46	44.2
	현황/실태 분석	49	47.1
	계	104	100.0
갈등분야	행정/제도 분야	24	23.1
	경제/산업 분야	10	9.6
	환경 분야	12	11.5
	사회/문화 분야	5	4.8
	시설입지 분야	28	26.9
	기타	25	24.0
	계	104	100.0

### 3.2 갈등당사자 관련 사항

연구논문에서 대상이 된 갈등의 수준을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 6편(5.8%), 조직내 집단 수준 1편(1.0%), 조직간 수준 84편(80.8%), 기타 13편(12.5%)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간 갈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직간 갈등이 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갈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다는 조직적으로 갈등상황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논문의 갈등주체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정부간 40편(38.5%), 정부와 주민간 39편(37.5%), 주민간 5편(4.8%), 기타 20편(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간과 정부와 주민간 항목이 7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행정학 분야의 갈등연구 분야는 공공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갈등당사자 내용 분석

분석기준	내용	빈도	퍼센트
갈등수준	개인적 수준	6	5.8
	조직내 집단 수준	1	1.0
	조직간 수준	84	80.8
	기타	13	12.5
	계	104	100.0
갈등주체	정부간	40	38.5
	정부 대 주민간	39	37.5
	주민간	5	4.8
	기타	20	19.2
	계	104	100.0
갈등관계	중앙부처간	10	9.6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8	7.7
	지방자치단체간	22	21.2
	중앙부처와 주민간	2	1.9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16	15.4
	주민간	5	4.8
	복합관계	21	20.2
	기타	20	19.2
	계	104	100.0

셋째, 갈등관계에 관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간 10편(9.6%),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8편(7.7%), 지방자치단체간 22편(21.2%), 중앙부처와 주민간 2편(1.9%),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16편(15.4%), 주민간 5편(4.8%), 복합관계 21편(20.2%), 기타 20편(19.2%)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간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복합관계 항목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권한 및 책임 등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갈등의 갈등주체와 갈등관계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갈등주체가 정부간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22편(26.2%), 중앙부처간 10편(11.9%),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편(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주민간이 갈등주체인 경우, 복합관계 21편(25.0%),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16편(19.0%), 중앙부처와 주민간 2편(2.4%)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갈등은 정부간과 정부와 민간이 전체의 94.0%로서 조직간 갈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갈등주체와 갈등관계 내용 분석

구분	갈등주체			전체	
	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주민간		
갈등관계	중앙부처간	10 (11.9%)	0 (0%)	0 (0%)	10 (11.9%)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8 (9.5%)	0 (0%)	0 (0%)	8 (9.5%)
	지방자치단체간	22 (26.2%)	0 (0%)	0 (0%)	22 (26.2%)
	중앙부처와 주민간	0 (0%)	2 (2.4%)	0 (0%)	2 (2.4%)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0 (0%)	16 (19.0%)	0 (0%)	16 (19.0%)
	주민간	0 (0%)	0 (0%)	5 (6.0%)	5 (6.0%)
	복합관계	0 (0%)	21 (25.0%)	0 (0%)	21 (25.0%)
	전체	40 (47.6%)	39 (46.4%)	5 (6.0%)	84 (100.0%)

$\chi^2=168.000$      $df=12$      $p<.05(p=0.000)$

#### IV. 결론

이 연구는 행정학 분야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의 경향을 파악하여 갈등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연도에 비례하여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갈등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논문의 저자가 1인인 단독연구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간의 학문적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이 연구논문 중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어, 갈등연구에 대한 연구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갈등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이 80.8%로서,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갈등연구의 목적이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와 현황 및 실태 분석이 91.3%로 나타났으며,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이론 검증/정립/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갈등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 연구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갈등분야는 행정/법·제도 및 시설입지 분야가 50.0%, 갈등수준은 조직간 갈등이 80.8%, 갈등주체는 정부간과 정부와 주민간 등이 76.0%, 갈등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64.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행정학분야의 갈등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현재의 갈등과 관련한 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갈등을 조직간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갈등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한계와 목표의 상충으로 인하여 조직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갈등 연구는 조직간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갈등 연구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갈등 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갈등수준과 갈등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갈등수준에서의 조직간 갈등관리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 또는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즉 조직내부의 갈등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조직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개인수준, 집단수준 등 다양한 갈등수준의 갈등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행정은 공익을 본질적인 가치로서 설정하고 있으며, 행정학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관련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갈등도 심화·확대의 과정을 거쳐 심각한 갈등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분야에서 갈등연구는 공공부문과 관련된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영향이 큰 민간부문의 갈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갈등분야, 갈등수준, 갈등주체, 갈등관계 등만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경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목표갈등, 이익갈등, 가치갈등, 문화갈등 등 다양한 분석기준과 접근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변성수, 이재은,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 화물연대파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pp.195-203, 2009.
- [2] Toynbee and J. Arnold, *A Study of History, Vol. 12: 254 Reconsiderations*, London, New York &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3] 김형렬, “인식상대주의 관점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방법론: 체계적·상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제1호, pp.1-19, 2005.
- [4] 이재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6호, pp.300-308, 2009.
- [5] 안병만, “행정학보속에 나타난 한국행정학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제20권, 제2호, pp.359-382, 1986.
- [6] 권경득,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pp.139-153.
- [7] 목진휴, 박순애, “한국정책학회보 10 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1호, pp.319-332, 2002.
- [8] 주상현,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3회, pp.39-55, 2002.

## <분석대상 갈등 연구 논문>

강문희(2006), 강운호(2005), 강인호·이계만·안병철(2005), 고경훈(2003), 고경훈·정인화(2008), 권경득·임정빈·장우영(2004), 권기현(2005), 권영규(2006), 김길수(2002), 김도희(2001), 김도희(2004), 김두래(2007), 김령중(1989), 김병국·권오철(2007), 김상구(2002), 김상구(2002), 김상구(2003), 김서용(2005), 김선길·박종화(2006), 김영기(1998), 김영돈(2006), 김영수(2003), 김영중(1996), 김영평(2002), 김영평·신신우(1991), 김인철·최진식(1999), 김종석·강은숙(2008), 김종후·전형원·강동희(1994), 김준한(1997), 김창수(2007), 김천영(2002), 김호섭(1989), 남현욱(1999), 문태훈(2001), 박근수·김영

환·박희서(2005), 박상필(2000), 박순애·박치성(2008), 박영미(1997), 박영주(2004), 박천오(2005), 박천오·서우선(2003), 박천오·서우선(2004), 방석현(1996), 백종섭(2002), 사득환(1997), 사득환(1999), 서순복(2005), 성지은(2005), 성지은(2007), 소영진(1999), 송건섭(2005), 송운석(1996), 심문보(1997), 심준섭(2008), 안광일(1990), 안광일(1994), 양현모·이준호(2003), 오세운·박희서·서순복·전정환·박영미(1998), 유종해(1990), 윤순진(2004), 윤영채·심문보(2000), 이달곤(1992), 이달곤(1993), 이달곤·전주상(2002), 이동기(2005), 이민창(2005), 이병갑(2004), 이병량·김서용·전영평(2008), 이상엽·김병식(1996), 이선우·주재복·문병기·정재동(2001), 이승철(1996), 이시경(2000), 이영조(2001), 이원일(1998), 이은구(1994), 이종열·권해수(1998), 이창원·전주상(2003), 이해익(1996), 이해영(1996), 임성옥(2005), 전주상(2000), 전주상(2002), 정규호(2007), 정정화(2003), 정정화(2007), 정주용(2004), 조승현(2003), 주경일(2002), 주경일(2002), 주경일(2004), 주경일·최홍석·주재복(2003), 주재복(2001), 진중순(2004), 진중순·박홍엽(2008), 최봉기·이시경(1999), 최연홍·오영민(2004), 최중술(2002), 최홍석·홍성만·주경일(2003), 하성규(1998), 하혜영(2007), 하혜영(2007), 하혜영·이달곤(2007), 홍성만·김광구(2008), 홍성만·주경일·주재복(2004)

배 정 환(Jeong-Hwan Bae)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충북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공공정책, 산업정책, 지역개발

저 자 소 개

변 성 수(Sung-Soo Byun)

정회원



- 2006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8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6년 11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정책집행, 조직이론, 갈등관리